



4면

국내 최초 무가선 광케이블 구축화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1년 6월 11일 금요일 (음 5월 2일) 제2797호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중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대표전화 (063)288-9700

“균형발전 · 예타제도 개선 · 재정분권을”

송지사, 민주 지도부에 지역현안 해결 지원 요청

“광역시 없는 지역 세분화 균형발전 평가가중치 상향 강소도시권 교통망 구축 별도 특별법안 제정해야”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10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과 국가예산 확보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참총은지방정부위원회 주관으로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12명의 시도지사들과 함께 민생경제, 균형발전, 재정분권, 국가예산 등 지역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먼저, 송하진 도지사는 민생경제 활성화 및 코로나19 방역 대응과 관련해 지역의 여건을 설명했다.

그는 “전북도는 지난해 3번의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등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재난지원금을



10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 간담회에 송영길 당대표와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시·도지사들이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과 국가예산 확보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지급한 바 있으며, 올해는 추경편성을 통해 1인당 10만원씩 전도민 재난지원금을 보면 지급할 예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도 전북은 백신접종률이 전남에 이어 2번째로 높은 24.53%이며, 60~74세 백신접종 사전예약률이 86.4%로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백신물량이 적기에 배정된다면 정부의 계획대로 9월말이면

3,600만명의 백신접종이 가능한 것으로 지역의 방역상황을 전달했다.

또한, 송하진 도지사는 지역균형발전과 예타제도 개선, 재정분권에 대해 민주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최근 예타표준지침 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내후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문제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면서, 예타 평가 체계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만 분리할 것이 아니라 비수도권

에서도 광역시가 있는 지역과 광역시가 없는 지역을 세분화하고, 전북처럼 광역시가 없는 지역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평가가중치의 상향을 건의했다.

그리고 현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 상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광역 교통망 구축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으므로, 전북 등 강소도시권의 교통망 구축을 위한 별도 특별법안 제정을 건의했으며, 전주~김천간 철도 와

‘전주~대구 고속국도’에 대한 국가계획 반영도 건의했다.

이어 재정분권으로 불리해지는 시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1단계 재정분권의 문제점을 보완 후에 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송하진 도지사는 도정 현안과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당차원의 지원도 요청했다.

일법 과제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 전북혁신도시 제3금융중심지 지정,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국가중장기 종합계획 반영 등 전북의 미래를 좌우할 청사진 마련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기를 당부했다.

2022년 국가예산 확보와 관련해서도 전북의 경제체질을 바꿀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모빌리티 등 미래신산업, 농생명,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 등에 대해서도 민주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민주당 송영길 당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윤관석 사무총장, 박원주 정책위의장, 참총은지방정부위원장, 당 소속 시·도지사 12명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 대응은 물론 지역현안 해결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당과 지방정부가 하나로 뜻을 모으기로 했다. /유호상 기자

올 역사자원 보유 농촌마을 4곳 조성

완주 고산촌 · 진안 원연장 고창 화산 · 부안 석동 등 도, 총사업비 43억원 투자

전북도가 도내 농촌 마을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연 자원과 역사적 아이템을 훼손하지 않고 영구 보존하기 위해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 조성사업’은 마을 단위에서 보유하고 있는 야생보호종, 자연경관, 역사적 유물을 발굴·육성해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사업이다

도는 올해 완주 고산촌, 진안 원연장, 고창 화산, 부안 석동 등 4개 마을을 선정하며, 개소당 최대 1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마을들은 아름다운 경관 조성과 역사 자원의 고충·복원에 집중할 예정이다.

‘완주 고산마을’은 대둔산의 위엄을 품고 있는 마을로,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자연 숲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수한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치유 숲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진안 원연마을’은 봄철 꽃잔디를 보기 위해 매년 12만명의 관광객이 몰리는 마을이다. 마을에 연접한 저수지를 수변 공원화하고, 계절마다 꽃이 가득한 ‘핑크마을’로 만들 계획이다.

‘고창 화산마을’은 선운산 자락에 위치해 보호수를 많이 보유한 마을이나, 마을주민의 고령화로 빈집이 늘어나면서 100년 전 조성한 돌담이 무너져 내리는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돌담을 복원하고, 마을 설화로 전해 내려오는 ‘도끼샘’을 복원할 계획이다.

‘부안 석동마을’은 전라유학진흥원 예정지와 도동사원 터가 있는 유학의 뿌리가 깊은 마을이다. 조선시대 유생들의 글 읽는 소리가 넘쳐나던 마을을 스토리텔링으로 복원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시대에 맞게 도시민에게는 한적하고 안전한 농촌 관광을 제공하고, 도내 농촌 마을에는 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호상 기자

노인 · 장애인 일자리 창출 ‘맞손’

전주시-농진청, 사업 발굴 · 협력 등 골자로

지속가능 사회적 가치 실현 위한 협약 체결

치유농업 기술 개발 · 탄소중립 사회 기반 구축도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시는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한 일자리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장애인 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

공·민간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하고자 ‘전주시 장애인 일자리 사회연대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또 취약계층의 수돗물 검사를 돕는 맑은물지킴이로 노인일자리 활용하는 한편 노인들을 마을관리 활동가로 양성하는 사업도 벌이고 있다.

하태웅 농촌진흥청장은 “전주시와의 이번 협약을 통해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자치단체간의 상호협력으로 지역과 공공기관이 상생발전하는 우수사례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승수 시장은 “노인과 장애인의 존엄 있는 삶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일자리”라며 “특히 자연과 함께하는 치유농업은 치매 예방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에게도 매우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알려진 만큼, 성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와 전북혁신도시 대표 입주기관인 농촌진흥청이 노인·장애인 일자리 창출, 치유농업 확산 탄소중립 기반 구축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4면>

김승수 전주시장과 하태웅 농촌진흥청장은 10일 전주시장실에서 노인·장애인 일자리 창출 등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골자는 ▲노인·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발굴 및 협력 ▲치유농업 기술의 개발 및 확산을 위한 협력 ▲친환경 에너지 전환 및 탄소중립 사회 기반 구축 ▲양 기관의 성과와 정책 효율적 홍보를 위한 협력 등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고 적합한

일지리를 발굴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농촌진흥청은 올 하반기부터 단기·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전주 지역 노인들을 우선 채용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시합작물 재배 보조 등 연구개발·보급 사업에 필요한 현장 지원 업무에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주시 노인 취업지원센터에 채용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또 노인들의 치매를 예방하고 발달장애인 돌봄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치유농업 프로그램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농촌진흥청만의 치유농장 운영 프로그램을 발달장애인을 위한 케어팜 등 전주지역 치유농장에 적용해 효과를 검증하고 그 성과에 따라 프로그램을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과 농식품 기술혁신에 나서는 등

언제나 도민과 함께 전북개발공사

풍요와 희망이 넘치는 전라북도를 위해 전북개발공사가 있습니다. 도민의 행복을 위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